“대행 선사 육성법문, 현대적 대기설법 전형”

최원섭 연구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조명

문답하는 대행 선사의 법문 방식은
석존 대면 설법, 선어록 전통 계승
매체에 기록된 대행 선사의 법어들
말투, 손짓 등 법어집서 생생 표현
“매체들이 아난 역할, 선구적 안목”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6일 대행선연구원 제17회 계절발표회에서 ‘묘공대행의 육성(肉聲) 전법’을 발표하고 있다.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법문은 1982년부터 오디오와 비디오로 녹음·녹화됐고, 이 육성과 영상은 〈한마음요전〉과 〈허공을 걷는 길〉 등의 법어집으로 발간됐다. 매체를 통해 기록된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과 법어집이 불교 전법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지난해 12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묘공대행의 육성(肉聲) 전법’을 통해 대행 선사의 육성법문이 불교적으로 어떤 전통에 기인·계승하고, 전법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조명했다.

먼저, 최 연구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살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부처님의 설법은 상대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을 가지며, 법을 설함에 있어 다양한 비유와 예화를 통해 대중을 교화했다. 또한 부처님은 말이라는 소리를 넘어 행동으로 교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깨달음의 위의(威儀)를 보여 저절로 감화시키는 방편도 내보였다.

이 같은 석존의 설법 방식과 특징은 중국 선종에서도 발견된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제접(提接)’이나 ‘입실(入室)’ 같은 선종의 언어에서 보이듯이 선종은 스승과 제자가 얼굴을 대면하며 가르침을 주고 받아왔다. 또한 조사(祖師)를 부처님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선종 설법의 특징이며, 이는 선어록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최 연구원은 “선종의 조사가 부처님과 같은 위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조사의 어록이 기존의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대체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조사를 부처님과 같은 위치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스승과 제자 모두 새로운 부처임을 보인 것이다. 부처와 부처가 만나는 구도를 구축한 것이 바로 선종의 강력한 힘”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 대면 설법의 전통을 계승한 선종의 방식을 대행 선사의 육성법문 역시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대행 선사 법문의 특징이다. 화두 ‘시심마(是甚麽)’를 ‘무엇인가’로 번역하지 않고 ‘이뭣꼬’라는 경상도 사투리로 통용할 정도로 경상도 출신 비구스님들을 많이 접하는 현대인에게 서울 사투리를 구사하는 대행 선사의 법문은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어려운 불교용어 대신 쉬운 용어를 활용한 선사의 생활법문 방식도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최 연구원은 “특히 법회 참가자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은 석존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법해주는 응병여약의 일대일 상담과 같은 형식이자, 선종에서 조사를 찾아가 입실해 선문답을 주고받는 모습의 전형”이라며 “대행 선사의 법문은 즉문즉설의 시초이자 대기설법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대행 선사의 육성법문을 문자화한 것이 〈한마음요전〉과 〈허공을 걷는 길〉과 같은 법문집으로, 한마음선원은 선사의 음성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편찬의 기조로 삼았다.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법어집이 법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구어체를 사용하고 어투를 그대로 반영할 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기록했다는 사실은 석존의 대면 설법 방식과 이를 계승한 선어록의 방식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이 앞에서 거론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육성 법문이 오디오와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보관돼 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존의 입멸 후 결집할 때 석존의 법문을 기억했다가 재연한 것이 아난의 역할이었다면 대행 선사 법문의 결집은 매체가 아난의 역할을 했다”며 “이는 육성 법문을 매체에 기록하겠다는 대행 선사의 선구적인 안목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에서 삼귀의를 하는 대중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다만, 최 연구원은 매체에 담긴 선사의 육성을 어떻게 재가공할 것인지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원은 “1980년대에 시대를 앞선 안목으로 대행 선사의 모든 법문을 매체에 담았을 때와 같은 도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또한 육성과 문자가 함께 하는 시대를 맞아 문자로 되어 있는 법어집의 역할과 방향 역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은 ‘참회와 회과를 통해 본 중국불교’를 통해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참회·회과 의례가 어떻게 현세 이익을 가져다주는 요소를 가진 의례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조명했다.

정완 스님은 “중국에서는 군주의 무능과 덕 없는 정치가 국가의 재이(災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고, 그 죄과를 없애는 기능을 가진 불교의 참회의례를 수용해 국가를 재이로부터 지키고자 했다”며 “그 후 중국불교에서는 참회·회과의 의칙이 정비되면서, 그 앞에 예찬을 붙이고 뒤에 발원을 더한 참법이 생겨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회 논평자는 정선 스님(동국대), 김영진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 제14회 계절발표회부터 시작된 한마음선원 지원·단체 소개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소개됐다. 발표는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 맡았다.

계절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 대행 선사의 법문을 영상과 책을 통해 만날 수 있고, 오늘 같은 계절발표회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면서 “그 옛날 부처님의 제자들과 조사들이 불법을 이어가고자 했던 노력들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최 연구원의 발표 논문을 통해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보았다. 이를 통해 선사의 법문을 공부하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학진 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법가’ 쓴 1세대 찬불가 작곡가 60년 불음포교 원력 집대성하다

찬불가 작곡가 이찬우 발표회
1월 9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15년간 수불스님 문하서 정진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스님의 법문을 청하며 부르는 청법가 첫 구절이다. 한국 불자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청법가를 작곡한 이찬우 작곡가〈사진〉. 평생 동안 찬불가 작곡과 발전에 이바지한 그가 회향의 무대를 갖는다.

1월 9일 오후 2시 30분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제4회 이찬우 작곡발표회’를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장 입장은 당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선율에 담은 수행과 전법의 서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찬불가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찬불가 운동’을 발원하며 60여 년 동안 한국불교 찬불가의 정체성을 고심한 이찬우 작곡가의 노력을 치하하고, 전법 정신을 기리는 시간이다.

이찬우 작곡가는 1세대 한국 찬불가 작곡가로 경희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다. 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하던 당시 서울 대각사 연화어린이합창단 단장 운문 스님과 인연이 되었다. 운문 스님은 거의 하루에 한 곡을 요청했을 정도로 열정이 가득했고 이찬우 작곡가는 스님의 열정을 따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곡을 선사했다.

이찬우 작곡가는 “운명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제가 스님과 인연이 되어 개종을 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을 정도로 매일 찬불가를 작곡하는 시간이 반복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때 만들었던 곡이 ‘나는 불교꽃’, ‘청법가’, ‘일천강에 비치는 달’이며 그 외 수많은 곡이 쏟아졌다. 널리 알려진 청법가는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간 법당 상단 아래서 단박에 작곡한 곡이다. 그는 상단 아래서 우연히 펼쳐 든 책에서 이광수의 시를 읽고 홀린 듯 작곡을 마무리했다.

이찬우 작곡가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거의 매일 곡을 만들며 절에서 지낼 당시 잠시 혼자 쉴 곳을 찾아 들어간 작은 공간에서 책을 펼쳤다. 그때 눈에 바로 들어온 것이 이광수의 시였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자리에서 작곡을 시작해 곡을 완성했다”며 “그 이후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더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찬우 작곡가는 1964년 봉축기념으로 제1회 불교동요 작곡 발표회를 동국대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불교동요집도 출판해 찬불가 발전의 기초석을 다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찬불가 작곡 발표회를 이어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3년 조계종 포교원장 공로패, 2009년 조계종 총무원장 공로패, 2012년 제1회 불교음악대상(조계종), 2013년 묘음불교문화상-작곡(묘음불교문화재단)을 수상했다. 또 불교 합창단을 지휘하며 2001년 세계종교음악합창제 이태리가르다 초청 찬불가 발표 은상, 2002년 세계합창올림픽(부산) 종교음악 동메달 등을 수상해 한국불교 합창단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이찬우 작곡가의 곡 21곡이 발표된다. 무대는 정효영(구서여중) 학생의 독창으로 시작해 안국선원 합창단, 붓다보이스콰이어, 테너 임찬우, 천불사 녹야 합창단, 소프라노 이지연이 곡을 선사한다. 특히 이찬우 작곡가는 안국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15년 동안 수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바를 곡으로 만들어 헌정해왔다. 이찬우 작곡가는 이번 발표회에서 수불 스님의 법문을 곡으로 만든 ‘더는 속지 말 지어다’ 외 4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지 홍
회 주 상 진
주지직무대행(재무) 심 곡
총무(원주) 벽 산
교 무 거 진
서 무 효 능
교무보 효 진
대 중 일 겸, 혜 승, 일 면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법무실장 홍창수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업무과장 이진미(소봉)
업무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소 장 곽승훈(동광)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